

김사량 소설의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

— 「빛 속으로」, 「천마」, 「광명」을 중심으로*

전 계 성**

요약

이 글은 ‘친일-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내셔널 관점을 넘어 김사량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의 위장논리인 내선일체 관념의 중층성을 논의하고 「빛 속으로」, 「천마」, 「광명」에서 시도되는 내선일체 관념의 전유에 주목하여 김사량 소설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격을 규명한다.

김사량의 내선일체 지향은 일제에 대한 정치적 협력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문학적 실천이다. 김사량은 먼저 「빛 속으로」를 통해 조선인과 혼혈인의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차별적 내선일체 관념을 깨면서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내선일체 이미지를 제시한다. 조선인과 혼혈인의 화해란 미나미 선생이 남 선생으로 변하여 혼혈인과 조선인의 아들 하루오를 사랑으로 품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천마」에서는 내지인임을 주장하는 현룡에 대한 자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기독교 회화화, 과도할 정도로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면과 함께 ‘아마 토다마시 세례’라는 타협의 길 앞에서 고뇌하는 식민지인의 모습이 제시된다. 이는 「빛 속으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극단적 방어기제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량은 「광명」에서 내선일체 관념의 재구성을 다시 한번 시도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화합 과정을 통해 일제의 정치적 내선융화 방향성을 ‘원수 사랑’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로 전유한다.

즉, 김사량은 「빛 속으로」, 「천마」, 「광명」을 통해 천황 중심으로 제국을 수립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1S1A5C2A020869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경북대학교 미주·유럽연구소와 인문대학이 공동개최한 “글로벌 한국학 현황과 과제” 국제학술대회(2024.11.8.)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미주·유럽연구소 전임연구원

고자 하는 수직적 내선일체 관념을 완전히 전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교리를 방법론으로 하는 새로운 일제 말기 조선인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제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사량, 친일 문학, 저항 문학, 내선일체, 기독교, 트랜스내셔널리즘

목차

1. 문제제기: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2. 내선일체의 중층성과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
3. 내선일체 관념의 기독교적 전유 과정
4. 마무리

1. 문제제기: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김사량은 친일 작가와 민족주의 작가의 면모를 모두 갖고 있다. 그는 「해군행」 등 내선일체 시국에 협력하는 작품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신고 여러 소설 작품에서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내선일체를 상기시키는 장면들을 포함시켰다. 일본어 글쓰기를 표방한 김사량은 표면적으로 보아 친일 작가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비평 「내지어의 문학」에는 자신의 일본어 글쓰기가 담고 있는 숭고한 민족주의 정신과 세계주의가 드러나기도 한다. 광형덕은 김사량이 ‘내지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어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어가 국어에 복종 및 공헌해야 한다는 사명 이데올로기로부터 탈각을 시도한 것”¹⁾이라고 본다. 아울러 김사량이 1945년 2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병사 후원부로부터 재지(재중) 조선 출신 학도병 위문단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었을 때 탈출을 감행하여 태항산의 팔로군으로

1) 광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37면.

들어간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김사랑을 민족주의 작가로 볼 것인지 친일 작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김사랑의 일본어 소설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점령한 국가의 언어로 조선 사람의 생활과 감정을 담아 내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못 역설적이다. 물론 일본어 글 쓰기 자체가 조선어를 말살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의도를 수용 및 체화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일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내선인간 사이의 보다 좋은 교류”²⁾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지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체내에 살아 숨 쉬는 조선 문학의 전통적인 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발현해 나가고 싶다”³⁾는 김사랑의 고백은 일본어 글쓰기 자체를 반민족적이라 비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조선어로 글을 쓸 수 없었던 식민 지배 현실에서는, 붓을 쥐는 것과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종국은 『친일문학론』에 김사랑을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이 작가는 그가 풍기는 강한 로컬리즘에 비해서 시국적 선동력이 미약한 작가”⁴⁾라고 평가한다. 「해군행」과 「바다에의 노래」 등은 명백한 친일 작품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적인 ‘내셔널’ 관념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바다에

2) 김사랑, 「내지어의 문학」, 『김사랑, 작품과 연구1』, 광형덕·김제용 편역, 역락, 2008, 264면.

3) 위의 글, 264면.

4) 임종국 저·이건제 교수,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244면. 아울러 임종국은 같은 책 240면에서, 김사랑이 『국민문학』에 일본어로 발표한 『태백산맥』(1943.2~10)에 대해 “밀 바다에 흐르는 향토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것뿐이다. 설익은 시국적 설교도 없거니와 어릿광대 같은 일본정신의 선전도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편은 비록 일어로 써졌을망정 열린 친일작품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작품이었다. 다만 주인공이 김옥균 일파라는 것이 평가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는지? 차라리, 일치 말업에는 이 같은 소재며 스타일의 국어작품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직 시국적인 것만 일삼고 일본정신의 선전에만 급급하던 작가 일파들과 대비하여, 그 실증적 예로서 거론함이 옳을지도 모르는 작품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의 노래)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던 1943년 12월 중순부터 다음해에 걸쳐 김사량의 나날은 민족적 양심의 가책과 오욕, 그리고 고뇌로 몸을 떠는 세월이었다”⁵⁾는 김사량의 고백은, 오히려 그의 민족주의적 내셔널 관념을 강하게 드러낸다.⁶⁾ 즉, 일본어로 조선 민족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던 김사량의 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 협력적 조선어 글쓰기를 하고 말았던 그의 처지가 동시에 보이는 대목이다.

조선어로 쓴 「해군행」과 「바다에의 노래」는 일제 말기의 시국 협력 작품인데 반해, 일본어로 쓴 「빛 속으로」 등이 오히려 민족의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당시 문학에 있어서의 내셔널 관념이 이미 다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 이전에는 조선 사람이 조선 문학을 하는 것이 조선의 내셔널이었고 그 외의 글쓰기는 조선의 내셔널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 또는 국가, 즉 철저히 ‘내셔널’이라는 경계 안에서 문학을 볼 때 김사량은 어느 한 쪽의 근거를 통해 민족주의 작가 또는 친일 작가로만 평가될 심산이 크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작가인지 친일 작가인지를 규정하려는 이분법적 내셔널의 관점은 다층적 성격의 김사량 문학을 보는 방법으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조선 민족의 생활과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⁷⁾에서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는 이중언어라는 요소와 더불어 내선일체라는

-
- 5) 안우식, 『아리랑의 비가 - 민족주의 작가 김사량의 비극적인 생애』, 열음사, 1987, 118면.
 6) 내셔널 관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트랜스내셔널 관념도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김사량이 처한 역사적 상황 자체는 내셔널리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이 글은 다만 김사량이 내선일체 관념을 표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작가적 대응 양상이 내선일체 거부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 주목한다.
 7) 김사량은 자신의 일본어 글쓰기를 스스로 이단적이라 명시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미숙한 내지어로 문학을 시작해서 그것을 내지인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에는 적어도 어떤 절실한 동기와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김사량, 「내지어의 문학」, 『김사량, 작품과 연구』, 광형덕·김재용 편역, 역락, 2008, 264면 참조.

정치적 관념의 틀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하지만 내선일체를 작품에서 내세우는 행위를 친일로 보지 않고 트랜스내셔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모든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 행위가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자유로운 탈경계·탈국가적 정체성의 출발점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 행위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적 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혁주 등의 부일 협력 행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일제의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동조를 문학에서 선보였다고 하기에는 김사량의 작품이 일제의 내선일체 사상에 담긴 정치적 목적과 확연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김사량은 트랜스내셔널 강요 시대에 내선일체 수용이 아니라, 자발적 조·일 트랜스내셔널리즘⁸⁾의 이상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변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두 국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에게 요구했던 이중적 국가 정체성으로서, ‘더 이상 조선은 없다’는 차원에서 일본 국민이기를 강요하는 동시에 ‘조선 출신의 이등국민’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강요된 트랜스내셔널리즘이다. 또 다른 하나의 국면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부속품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로서 엄연한 화합의 주체임을 표방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은 후자에 가깝지만, 사실 그 기원은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경계 허물기에 있다. 가령 식민주의 시기 이주민은 비록 정복당한 민족적 상황에 의해 이주하였지만, 출발국과 도착국에 대한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초국적 시대를 맞이한 첨병

8) 표면적으로 김사량이 추구하는 자발적 한·일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내선일체 수용 기반 위에 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사량의 관념 속에 일본 제국이 주장하는 내선일체의 진의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국 및 내셔널에 대한 거부이자 탈피가 될 수 있다.

으로서의 세계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사량은 조선이나 일본이나의 문제에서 벗어나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일본 내 조선인의 상황을 알리고 제국의 경계 자체를 문제 삼고 내선일체를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의 작가이지만 현재의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범주에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모든 친일 작가의 내선일체 주장 행위가 시대를 앞선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을 제거하고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작품 속 내선일체의 형상화 방식에서 일제의 정치적 목적 달성 외의 어떤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친일 문인들이 내세웠던 내선일체 논리는 황국신민의 눈물겨운 충성 장면들을 통해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성격을 띤다. 김학동은 장혁주의 『이와모토 지원병』(194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감격이었다”로 시작되는 작품집의 서문인 「序를 대신하여(序に代えて)」에서는, “완전한 일본인이란 즉 진정한 황국신민을 말하는 것” “징병제 실시는 조선의 황민화를 인정받은 날” “이러한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들은 한층 연성에 힘쓸 것을 맹세하는 바이다”와 같이 조선인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⁹⁾

그러나 김사량의 작품은 내선일체에 대한 이상적 전망이 허상으로 존재하던 제국주의 침략의 위장 논리를 넘어 휴머니즘적 성격을 띤다는 점

9) 김학동, 「친일문학과 민족문학의 전개양상 및 사상적 배경-재일작가 장혁주, 김달수·김석범의 저작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20, 한국일본학회, 2019, 101면.

에서 변별적이다. 이는 친일이나 저항이나를 확정하려는 이분법적인 내셔널리즘의 관점 대신,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김사랑을 볼 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는 일본어 글쓰기가 내선일체 논리의 내면화 및 황국신민화의 결과로 비판받지만,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는 민족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혼종들의 장밋빛 미래가 구상된다는 점에서 일본어 글쓰기가 친일 반민족 행위 외의 다른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초국가주의가 인문학의 한 트렌드로서 이론적으로 성립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지만, 동아시아 근대기에도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는 그와 같은 초국가주의적 사상, 초지역성의 사상을 기저로 활동했던 인물들은 다수 존재하였다”¹⁰⁾는 신현승의 언급을 상기한다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현대에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강요된 트랜스내셔널리즘에 의해 발생한 혼종들의 움직임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에 오히려 출발 지점에서의 재개념화가 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사랑의 「빛 속으로」는 재일조선인의 이중언어 글쓰기가 정착되기 전 트랜스내셔널리즘 문학 형태로서 이해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각 8개월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된 「천마」, 「광명」은 일제의 내선일체 관념에 대응하는 식민지인의 방향성을 천착했다는 점에서 「빛 속으로」와 긴밀히 연결되는 작품들이다.

「빛 속으로」는 주로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피식민자의 대응에 대해 정체성 찾기¹¹⁾, 혼종과 분열증¹²⁾, 탈식민주의¹³⁾, 제국

10) 신현승, 「동아시아 근대사상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 -한중일 근대사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0, 한국일본사상학회, 2011, 155-156면.

11) 황봉모, 「김사랑(金史良)의 〈빛속으로(光の中)〉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의 '정체성'찾기-」, 『외국문학연구』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이헬렌,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경계에서 - 김사랑의 「빛 속으로」 에서 주인공 미나미의 관계맺기와 자기 구현」, 『일본학』 61, 일본학연구소, 2023.

12) 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종/혼혈과 분열증 : - 장혁주 「우수인생」, 김사랑

균열¹⁴⁾ 등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광명」의 경우 「빛 속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데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심문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¹⁵⁾을 들어 그 문제성을 호평하는 공중구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공중구는 호미바바의 이론을 통해 「광명」¹⁶⁾이 ‘식민주의의 욕망과 민족주의적 지향의 양가성’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김주영은 최현식의 ‘혼종적 저항’, 윤대석의 ‘양가적 혼란’이라는 분석에 더하여 「빛 속으로」의 주인공에 대해 ‘제삼의 종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아마다+정순’의 모순은 치유되지 못하는 강간적 역사”¹⁷⁾라는 분석을 통해 실패한 제국의 한계라는 의미를 도출한다. 이주미 또한 「빛 속으로」와 「천마」에 나타나는 피식민자의 갈등과 혼란이 「피식민자의 관점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의미하지만 식민자의 관점에서는 정형화의 실패를 의미”¹⁸⁾함을 강조한다.

한편 모지현은 김사량 소설 「향수」 분석에서 트랜스내셔널 개념을 도입하며 “아편 밀매자이자 중독자인 인물을 통해 내셔널리즘이 부과한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는 트랜스내셔널의 가능성”¹⁹⁾을 강조한다. 기왕의 연

「빛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 김사량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13) 이주미, 「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상상」,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김혜연, 「김사량의 「빛 속으로」의 근대성 연구」, 『배달말』 46, 배달말학회, 2010.

14) 김주영, 「김사량의 「빛 속으로」를 통해 본 균열의 제국」, 『세계문학비교연구』 37, 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15) 공중구, 「김사량의 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지향 - 「광명」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19-2, 인문학연구소, 2018, 38면.

16) 공중구는 「광명」을 민족주의 지향의 차원에서 「빛 속으로」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임을 밝히는데 이 글에서는 김사량이 내선일체 관념을 비틀고 기독교적 요소를 통해 민족주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7) 김주영, 위의 글, 52면.

18) 이주미, 앞의 글, 238면.

19)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 19면.

구들은 내셔널의 범위 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저항과 식민자 정책 좌절이라는 의미를 도출했지만, 모지현의 논의는 ‘비(非)국민’의 위치에 머무는 인물에 주목하면서 김사랑 소설을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범주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그러나 상기 논의들은 결국 내선일체라는 일제의 정치적 목적 아래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봉합하기보다는 미해결된 채로 열어둔다. 김사랑이 혼종적 주체를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혼종과 분열이라는 양상 앞에서 내셔널 관점 너머의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가는 구심점²⁰⁾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의 허구성 폭로와 제국주의 정책의 실패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는 민족주의 기반의 세계 지향성²¹⁾과 관련된다. 내선일체라는 일제의 정책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조선 문학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선일체라는 관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김사랑의 일본어 작품의 시국협력성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친일-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내셔널 관점을 넘어 김사랑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의 위장논리인 내선일체 관념의 중층성을 논의하고 「빛 속으로」, 「천마」, 「광명」에서 시도되는 내선일체 관념의 전유에 주목하여 김사랑 소설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0)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1)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모든 일본어 글쓰기와 내선일체에 관한 서술을 민족주의 기반의 세계 시민주의로 일반화·정당화할 위험도 있지만,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의 범주에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김사랑의 경우 해석의 틀을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내선일체의 중층성과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들을 한인 디아스포라로 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섞여버린 경계가 아니라 섞이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자들, 회귀하려고 애쓰는 자들로서 여전히 초국적보다는 단일 정체성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에 동화되어 일본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귀화’한 조선인이라는 부연 설명이 붙겠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민족 경계를 넘어 다른 민족의 경계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 정체성 회복과 귀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일조선인 집단의 ‘초국적 상태’란 사실 허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출발국과 도착국 사이에서 부유하는 존재들이 언제든지 출발국이나 도착국에 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트랜스내셔널리티는 요원하고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 통용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등등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²²⁾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이 발생한 것은 디아스포라나 다문화주의가 민족적 경계를 그대로 둔 채 경계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용어라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학계가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해, 디아스포라가 아닌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포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집단으로 여기려는 의식에 기민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소외된 자들을 배제하려는 의식에 대한 대응 방식은 결국 포스트 내셔널 시대의 휴머니즘 성취 여부와 직결된다. 디아스포라 개념이 경계 바깥에 위치한 이주민들의 비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개념이라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일국 중심의 국수적 정

22) 광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12, 207면.

체성을 해체할 수 있다는 점, 자발적 이주민들의 삶이나 의지를 긍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²³⁾에서 점점 가속화되는 초국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이상적 휴머니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지닌 소수 배제 의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트랜스내셔널 휴먼 개념을 발족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하나의 조건은 모국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 시민적 속성이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을 트랜스내셔널 휴먼 범주에 위치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재일조선인 1세의 경우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이중언어 상황을 맞이하지만 2세 이후부터는 조선어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일본어의 점유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의 본질과 멀어진다. 트랜스내셔널은 출발국과 도착국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다른 쪽에서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장하는 움직임임을 표방한다. 현재의 한국 재외국민 관련 제도와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에서는 재일조선인이 트랜스내셔널 휴먼이 되기 어렵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시초 단계에 있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조선인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를 한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트랜스내셔널 휴먼으로 칭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조선인으로서의 뿌리를 버리고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은 트랜스내셔널 휴먼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기에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 이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애매한 위치를 수용하기 어렵기에 안전한 또 다른 경계선 너머로 가기를 원하여 귀화를 택하기도 한다. 귀화를 통해 조선 민족의 경계선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은 이미 디아스포라에서 떨어져 특정 국가의 경계선 안쪽으로 진입한 것이다. 물론 신분 보장을 위해 귀화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끊임없이 한국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23) 강희진, 「호주한인 시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8, 한국문화예술연구소, 2023.12, 8면.

또 다른 층위에서 ‘트랜스내셔널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일 양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트랜스내셔널하지 않고 디아스포라적이다. 재일조선인들의 내적 갈등과 정체성 선택 과정에는 여전히 국가적 경계에 의한 강요가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트랜스내셔널리즘 개념은 현실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을 경계 강요에서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인 것이다.

결국 현대의 재일조선인을 두고 한인 디아스포라가 아닌 트랜스내셔널 휴먼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을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의 재일조선인은 식민지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띠게 된 것은 식민지 시대의 강요된 트랜스내셔널리티 때문이다. 내선일체 강요는 곧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주문에 따라 양국 정체성 중 하나를 내밀 수 있는 전환 가능성을 의미했다.

물론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죽음이 선택 가능하지만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체성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는 식민지 시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대의 디아스포라를 목도한 뒤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며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일과 같다. 재일조선인은 명확한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원했지만 현대의 디아스포라 개념에 혁신을 일으키려 하는 그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이미 오래 전 강요받은 까닭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연구는 일제강점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방 후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국가의 문제를 그때 그 시절의 작가가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제강점기 문학, 그중에서도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완전히 강요되는 일제 말기 작가들의 대응에 주목할 것

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한국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친일 문학’과의 직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내셔널의 관점은 한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임이 틀림없지만, ‘친일 아니면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붓을 쥐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모든 경계들이 희미해지는 글로벌 시대에서 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국가적으로 우리의 내셔널리즘이 세계와 호응하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한국 문단의 풍경을 진단함에 있어 친일 문학은 내셔널리즘이 아닌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친일 문학은 공통적으로 내선일체 관념을 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요구한 내선일체는 조선인을 전쟁 자원으로 호명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내선일체에 동조하기만 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의지에 동조하고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이를 일본 천황 중심의 수직적 내선일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전제로 하며 철저히 조선인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내선일체는 일제가 포용적 태도를 위장할 수 있었던 개념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긍정성을 내포한다. 즉, 내선일체 관념은 중충적인데 여기서 포용성을 띠는 내선일체를 수평적 내선일체라고 부를 수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작가들에게 이 개념을 적용하면 똑같이 작품 속에서 내선일체 관념을 드러냈다고 해도 적극적 동조가 아니라 강요에 대한 방관적 대응 또는 기만전술에 대한 우매한 대응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내선일체 관념 표출 자체를 친일 행위로 보는 통념적 시각 때문에,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방향성에 대적할 만한 관념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선일체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온전하게 친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은 내선일체를 작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일본 제국주의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선인을 기만하는 내선일체 관념을 전파했다 하더라도 조선인이 그것을 본질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미의 굴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선일체에 관한 본질적 해석을 위해서는 내선일체를 추동하는 근원적 관념이 필요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경우 군국주의와 대동아 공영권이 내선일체 관념의 근원이 된다. 하지만 부일 협력자를 제외한 조선인들에게 종교 이외에는 조선과 일본의 일체 또는 세계적 연합에 대한 당위성을 추동하는 구심점을 찾기 어렵다.

김사량의 경우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조선 민중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일본 문단에 정위치 시켰다. 그의 일본어 글쓰기 의도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라도 알려져 제국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려는 민족의식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저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넘어선 제3의 이상적 세계 추구에 있었다면 김사량은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시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그의 이상 세계 추구가 단지 민족적 저항의 자세에만 그 근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빛 속으로」, 「천마」, 「광명」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내선일체와는 다른 색깔의 내선일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내선일체라는 관념의 등장은 처절한 식민지 현실 아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일체 말기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인들에게 일본과의 오랜 대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일말의 긍정적 신호로 수용되었을 수 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내선일체라는 문자 자체가 원수 된 민족들의 융화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내포한 까닭이다. 제국주의에 짓밟히던 식민지 조선인에게 대립적 민족들 간의 화합이라는 것은 조선 독립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평화의 세계를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선일체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묘수였던 반면, 본질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포하는 모순적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사량은 어떠한 내선일체를 지향한 것인가. 그가 임종국의 지적과 같이 『매일신보』에 실은 글의 시국 협력성이 약하고, 안우식의 지적과 같이 「해군행」 등의 글을 실은 뒤 무척이나 괴로워했으며, 결국 태항산의 항일 기지로 탈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장혁주의 내선일체 지향성과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사량의 내선일체 지향성은 일제에 대한 정치적 협력보다는 본질적인 사랑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문학적 실천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사량이 추구한 ‘일체’, 즉 융화 또는 하나됨의 가치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바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 일본을 끌어안는 것은 결국 자기를 침략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때 원수 사랑의 메시지와 관련되는 종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다. 장문석은 김사량의 「천사」에 대해 “구원의 방법은, 그네뛰기가 표상하듯 ‘조선적인 것’인 동시에 초파일의 관등제라는 ‘종교적인 것’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불교적 구원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룰 「빛속으로」, 「천마」, 「광명」에 스며들어 있는 내선일체의 지향성이 어디로부터 발원되었는지를 살필 때 보다 유용한 쪽은 기독교로 보인다. 김사량은 「내지어의 문학」에서 자신이 취할 조선 문학의 방향성을 내선일체 판념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전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편협하지 않은 양식(良識)을 바탕으로 조선인의 생활과 감정, 현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호소할 생각이다. 역시 그것이 가장 내게는 친밀하고 소중한 것이며, 또한 내 예술적인 정열이나 의욕까지도 불러일으킨다. 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다. 광대한 세계를 동경하여, 사랑(愛)의 고귀함을 소중히 하는 기분을 올곧게 갖고, 내선인간(內鮮人間) 사이의 보다 좋은 교류에 대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으리라 생

각하고 있다. (...)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궁구(窮究)하고 또한 그 상태를 비판하면서, 내지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체내에 살아 숨쉬는 조선 문학의 전통적인 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발현해 나가고 싶다.²⁴⁾ (강조-인용자)

김사랑이 조선인의 생활과 감정을 일본의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다’는 것은 제국주의로 인해 원수된 두 주체의 관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민지의 억압받는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이뤄진 폭력에 대해 용납하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위치시켜 “내선인간 사이의 보다 좋은 교류”를 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도구로서 침략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여 그 중심 독자를 내지인으로 한다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아닌 융화된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이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일체와 완전히 다르다. 김사랑은 표면적으로는 ‘내선인간 사이의 좋은 교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선일체의 의미가 지닌 중층성에 파고들어 사랑을 통해 융화되는 세계 속의 조선 문학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조선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조선어 사용이 불가능한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조선 문학의 미래적 상태를 말하며, ‘사랑’은 제국주의의 정치적 목적으로 점철된 내선일체 관념을 혁신시키는 도구가 된다. 특히 이 ‘사랑’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수 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이다. 아래는 성서에서 ‘원수’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24) 김사랑, 「내지어의 문학」, 『김사랑, 작품과 연구1』, 광형덕·김재용 편역, 역락, 2008, 263-264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18)

(나)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3-44)

(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35)

(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위의 성서 내용 가운데 (라)는 죄로 인해 신과 인간이 원수가 된 지경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사건을 암시한다.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 중 예수가 가장 강조한 계명도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원수 된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사랑의 기독교적 색채는 비단 수필 「내지어의 문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으로」, 「천마」, 「광명」, 「향수」 등에서도 드러난다.²⁵⁾

안우식에 의하면 김사랑은 “평양 계리(平壤 鷄里) 산정현 교회당(山亭 峴教會堂)에서 김관식(金觀植) 목사의 주례로 최창옥과 결혼”²⁶⁾했다. 아울러 안우식은 김사랑의 어머니와 아내 최창옥이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임을 증언하면서 그것이 일본 가톨릭계 보인대학 교수 부인과의 친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김사랑 스스로가 기독교 신

25) 광형덕은 「향수」 연구(광형덕, 「김사랑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 : 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214-215면.)에서 구약성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구절들이 변용된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빛 속으로」, 「천마」, 「광명」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6) 안우식, 『아리랑의 비가 - 민족주의 작가 김사랑의 비극적인 생애』, 열음사, 1987, 18면.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누이인 김오덕이 이화여자전문학교 출신임을 고려하면 그의 집안 전체가 기독교적 인맥에 의해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제 말기 김사량의 작품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제 통치 권력의 내선일체 관념 이상의 지향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 지향성이 민족적 배타성을 초월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김사량의 「빛 속으로」, 「천마」, 「광명」에 공통적으로 내선일체 관념이 드러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친일과 저항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작가의 의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전반에 어떻게 기독교적 색채가 덧입혀져 있는지, 서사의 핵을 이루는 내선일체 관념이 어떻게 식민 지배 권력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그의 문학이 일제 말기에 친일과 저항을 넘는 제3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문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3. 내선일체 관념의 기독교적 전유 과정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빛 속으로」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식민지인의 정체성 분열에 주목하고 있다. 그 분열은 조선인 또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저항과 친일이라는 경계 사이에서 부유한다. 일제 말 국민문학의 시대에서 저항과 친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석희는 “주인공 미나미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조선인 성을 밝히는 일이 없고, 누군가에 의해 폭로되는 순간에만 자신의 조선인 성을 밖으로 드러내어 인정한다”²⁷⁾고 분석하였는데,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 글

쓰기 행위를 근거로 김사량을 정체성 분열을 일으킨 식민지 작가로만 규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이어지는 정체성 분열은 “김사량 자신이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피식민지인 당사자로서의 갈등”²⁷⁾으로 의미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제 말기 김사량 문학이 갖는 의미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연민 이상의 방향성이다. 물론 결론은 내선일체로 동일하기에 임종국이 그를 친일문학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내선일체가 기독교적 요소를 만남으로써 원래의 방향성과 의미가 재맥락화되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는 김사량이 정체성 분열에 함몰된 작가가 아니라 저항과 친일 너머의 길을 구상했을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것이다. 그 가능성은 트랜스내셔널리즘과 맞닿아 있다. 내셔널리즘적 관점에서는 저항과 친일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김사량과 같은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김사량의 행보는 표면적으로 친일의 색채를 띤다. 그러나 작가의 시국 협력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은 강요된 내선일체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포착되는지의 문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움직임이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응수하는 내셔널리즘과 닮았는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사량은 「빛 속으로」, 「천마」, 「광명」을 통하여 내셔널리즘에 토대를 둔 내선일체 관념을 트랜스내셔널리즘적으로 전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빛 속으로」는 1939년 10월에, 「천마」는 1940년 6월에, 「광명」은 1941년 2월에 각각 발표되었다. 일제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5월부터 일본·조선·대만에서 동시에 시행”²⁸⁾했다. 1939년에는 내선일체

27)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 김사량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7, 24면.

28) 위의 글, 35면.

를 목적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본어로 소설을 발표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사량은 치안유지법 강화로 많은 조선인들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1941년 5월 1일 치안유지법이 개정³⁰⁾된 후인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다음날에 경찰은 ‘비상조치’로 전국에 걸쳐 일제히 조선인 ‘사상 분자’ 124명을 검거했다. 그때 소설가 김사량도 검거”³¹⁾된다.

국가총동원법으로 일본, 조선, 대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본에서 동포들이 치안유지법 강화로 검거되던 그 시점에서, 일제는 ‘내선일체’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김사량이 검거되기 전 「빛 속으로」, 「천마」, 「광명」에 내선일체 또는 내선융화 기획을 반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국협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광수의 내선일체 주장³²⁾과는 완전히 다르다. 단적인 예로 「광명」에서는 일본인 여성에게 내선융화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등 국가총동원 및 창씨개명에 깔린 민족말살의 저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였던 이광수가 보이는 친일의 적극성 정도는 당시 일제의 전시태세에 발맞춘 내선일체 강화 움직임에 준하는 것으로 볼 때, 정책의 방향과 묘하게 엇갈리는 인상을 지닌 김사량의 상기 작품들은 구금의 사유가 될 만하다. 「광명」을 발표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구금이 되고 또한 50일 만에 풀려났다는 것은 김사량의 내선일체에 대한 문학작 대응이 얼마나 복잡

29) 김삼웅 편저,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1997, 148면.

30)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사료로 본 한국사(근대) 정치(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치안유지법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levelId=hm_125_0050\(2025.03.20.17:40\)](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levelId=hm_125_0050(2025.03.20.17:40))

31) 미즈노 나오카문경수, 『제일조선인 - 역사, 그 너머의 역사』, 한승동 옮김, 삼천리, 2016, 96면.

32) 이광수는 “大體 內鮮一體란 무엇이나 하면 내가 在來의 朝鮮의 이런것을 버리고 日本의 인것을 배우는 것이다 一言以蔽文하면 이것이다 그리하여서 朝鮮二千三百萬이 모다 戶籍을 써들어 보기 前에는 內地人인지 朝鮮人인지 區別할수없게 되는 것이 그最後의 理想이다”(「문화계의 신체제 - 심적 신체제와 조선 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9.4.)라고 주장한다.

하고 기민한 것이었는지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세 작품은 기독교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점진적 형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작품은 8개월씩 동일한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는데, 이들이 선형적 발전 형태 속에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내선일체 관념이 기독교적 가치와 혼종되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점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저항과 친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던 일제 말기에 김사량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전제한 내선일체의 허상을 보편적 실상으로 전환하는 데 기독교를 활용했다.

「빛 속으로」에는 일본 내 조선 이주민과 혼혈인 사이의 융화 문제 앞에 스스로의 정체성 때문에 번민하는 南(미나미) 선생이 배치되어 있다. 남 선생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혼혈인 하루오 역시 분열을 겪고 스스로를 조선인이 아니라고 부르짖는 인물이다. 분열의 주된 요인은 차별적(수직적) 내선일체 관념이다.

선생님도 제대 다녀요? 그는 정말로 놀란 것임이 틀림없다. “조센진도 받아주나요?” “그야 누구라도 넣어준다. 시험에만 붙는다면…” “거짓말이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다고요. 이 조센진 녀석 틀려먹었군. 소학교에 넣어준 것만도 감사하라고.”³³⁾

하루오는 조선인인 남 선생이 동경제국대학에 다니는 것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놀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인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다. 당시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도 요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인의 현실이었음을 고려할 때, “시험에만 붙는다면”이라는 남 선생의 말에는 위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에 붙기만 하면 일제가 말하는 내선일체의 환상이 실현될 것처럼 하루오에게 말하

33)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3』, 역락, 2013, 22면.

고 있기 때문이다. “위선자 녀석, 네놈은 또 위선을 부리려고 하는 게냐 내 바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놈도 지금은 근성이 약해져서 비굴해진 것이 아니더냐’”(31)에서 알 수 있듯이 남 선생은 그것이 위선임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순간이 ‘미나미’가 ‘남’ 선생이 되는 시점이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주문하는 내선일체의 환상은 하루오를 통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깨져버린 환상을 다시 봉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일제의 정치적 요청으로서의 차별적 내선일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내선일체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유해버리는 것이다. 김사량의 행보를 내셔널리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자나 후자나 다를 것이 없지만, 트랜스내셔널리즘적인 관점에서는 내선일체의 의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김사량은 먼저 「빛 속으로」를 통해 조선인과 혼혈인의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차별적 내선일체 관념을 깨면서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내선일체 이미지를 제시한다. 조선인과 혼혈인의 화해란 미나미 선생이 남 선생으로 변하여 혼혈인과 조선인의 아들 하루오를 사랑으로 품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조선인이 조선인의 혈통을 타지에서 알아보고 선의를 베푸는 민족주의적 서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극복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남긴 예수의 세계시민주의와도 연결된다.

그러면 내가 이 군에게 한 것 또한 일시적인 감상이든 걱정이든 “나는 조센진이다. 조센진이라고.” 하며 아우성치던 오텡집 사내와 뭐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나. 또한 그것은 자신은 조센진이 아니라고 소리쳐대는 야마다 하루오와 비교해 봐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차이점도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오늘도 터키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과 스모를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어째서 조선인 피를 이어받

은 하루오만 그것이 안 된단 말이나? 나는 이 땅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렇다, 확실히 나는 진흙탕과도 같은 연극에 지쳐 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미나미가 돼 있었다.³⁴⁾ (강조 - 인용자)

“터키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과 스모를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는” 장면은 ‘조센진’이라는 칭호와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자신을 무장해야만 했다는 남 선생의 말은 ‘조센진’이라는 칭호 때문에 남 선생으로서 일본 사람들과 천진난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막혔고 마침내 ‘남’이 아닌 ‘미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에게 조선인은 이방인이며,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그리고 그런 혼혈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난 혼혈인 모두가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조센진, 혼혈인, 혼혈인의 혼혈인이 되었던 것이다.

혼혈인 하루오의 아버지 한베는 처음에는 조선인을 경멸하는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남 선생이 유치장에서 만났던 그 사나이가 하루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 이후로 그 역시 혼혈인임이 드러나게 된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베는 매춘으로 유명한 스사키 지역의 조선 요리집에서 조선인 매춘부 정순을 데리고 나와 자유를 주고 부인으로 삼았지만, 가정폭력을 일삼는다. 이는 혼혈인의 조선인에 대한 핍박이다. 또한 조선인 이 군이 혼혈인 한베를 부를 때 사용하는 ‘튀기’(혼혈아 비하 용어)라는 단어는 조선인의 혼혈인에 대한 핍박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서 화해하지 못하는 혼혈인과 조선인의 내선일체 불능 이미지가 제시된다.

한편, 한베는 아들인 하루오와도 화해하지 못한다. 하루오에게 한베는 악몽 속에서 자신을 해치우려고 버르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³⁵⁾ 이는

34) 앞의 책, 32면.

혼혈인끼리도 화합하지 못하는 내선일체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남 선생과 혼혈인 하루오의 만남은 수직적 내선일체 관념 속에서 꼬여버린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사로 기능한다. 특히 하루오가 함께 유치장에 갇혔던 한베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남 선생과 하루오의 화해가 혼혈인과 조선인 사이, 나아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근원적인 화합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처음에는 역시 어머님께서 하루오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을 위해서도 또 하루오 군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역시 여전히 한베 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군요.” (….) 그녀는 어찌면 자신이 내지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을 품고서 자신이 처한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위안으로 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히려 그녀가 한베에게 격렬한 증오심을 품고 있으리라 기대하며,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끼리 의분을 나누고 기쁨에 취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보기 좋게 허탕을 쳤다.³⁵⁾

정순의 위와 같은 반응은 일차적으로 김사량이 민족주의적 노선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순이 한베에게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오를 모른 척 해달라고 남 선생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조센진’이라는 칭호를 통해 수직적 내선일체 관념을 강요하는 담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암시하고 있다. 김사량은 결국 다음 장면을 통해 동포 사랑 이상의 그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35) 하루오는 꿈에서 깨어나 “아버지가 다음엔 나를 해치운다고 했어요.”(앞의 책, 38면)라고 말한다.

36)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3』, 역락, 2013, 40-41면.

내 눈앞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상처입고 뺏겨진 한 소년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뻗고 팔을 펴서 쏟아지는 빨강과 파란색의 다양한 빛을 쫓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춤을 추는 이미지가 아른거렸다. 내 전신에서 생생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 또한 만족한 듯 미소를 띠면서 나를 바라봤다.³⁷⁾

하루오의 춤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 정순의 피 이미지, 즉 일본 제국주의의 욕일기 빛을 ‘다양한 빛’으로 대체한다. 정순이 흘리는 피는 한배에게서 촉발된 것이다. 혼혈인이기는 하지만 한배에게는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는 조선인 정순을 소유물로 정복하여 폭력을 통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정복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물론 ‘빨강과 파란색의 다양한 빛’이라는 부분이 하루오의 춤 선에 의해 태극 무늬를 만든다고 바라볼 여지는 있다. 이 태극을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김사량이 남 선생을 통해 시사하고 있는 사랑의 색깔은 오히려 조선의 태극기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색깔에 더 무게가 실린다. 심지어 빨강은 일본 국기의 이미지를 포함하기도 하면서 내선일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천황 중심의 정복적이고 수직적인 이미지는 수평적이고 전인류적인 것으로 치환된다.

결국 김사량은 상처 입은 하루오를 마음으로 품고 그의 회복과 성장에 기쁨을 느끼는 남 선생의 보편적인 사랑을 통해 내선일체 관념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내선일체 관념 속에서 양산되는 수많은 ‘미나미’와 ‘한배’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내선일체 관념에 대한 수평적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내선일체에 대한 수평적 재구성 노력은 김사량이 제2소설집 『고향』 발문에서 “「광명」이나 「향수」 등에서는, 고향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살리는 방도”라고 언급한 것과 깊이 관련되는데, 그는 이것을 자신의 소설 주

37) 앞의 책, 51-52면.

제로 일찍부터 추구해왔던 방향이라 고백하고 있다. 특히 그가 말한 “내적 진실성 규명”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내선 일체 관념과 대치되며 스스로도 “내선(內鮮)의 일체화는 진실로 이상적인 형태로 달성돼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 관념의 다층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김사량의 방향성의 근원이 되는 동력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남 선생과 하루오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민족적인 것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좀 더 넓은 범위, 즉 세계적인 것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빛 속으로」의 제목이 함의하는 ‘빛’과, 하루오가 춤을 통해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다양한 빛’이 인류애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이는 그 어느 종교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간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김사량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과, 김사량의 여러 소설들에서 기독교 관련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김사량 문학에서 사용되는 빛의 이미지를 친일의 상징처럼 이해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빛 속으로」에 등장하는 S협회의 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사량 전집 김재용·곽형덕 편역본에서는 “S협회는 동경제국대학 세틀먼트(settlement)를 지칭한다. 김사량은 실제로 이곳에서 활동했다”³⁸⁾라고 밝히고 있다. 동경제국대학의 세틀먼트 운동은 서양 근대 세계를 모방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힘썼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선교 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빛 속으로」에는 기독교 선교적 메시지가 표출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들은 「빛 속으로」와 기독교의 관련성을 상기시킨다.

「천마」에서 김사량 문학과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한 심증은 더욱 분명해진다. 「천마」는 주인공 현룡을 통해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와 정체성

38) 앞의 책, 12면.

분열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적 요소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도 신앙적 수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빈대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기독교를 비웃기 위해 기독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류노스케의 언급이 상기되는 부분이다.

빈대는 마침 어느 표제어 위를 지나가면서, 그가 무심결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실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순간 이것은 천우(天佑)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그는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같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비록 학예란 한 구석의 작은 활자라고는 하지만, 그와는 그야말로 실로 각별한 친분이 있는, 동경 문단의 작가 다나카(田中)가 만주(滿洲)로 가는 길에 경성에 들러 조선 호텔에 투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꼭 찾아가야겠다.”³⁹⁾

여기서 빈대는 현룡과 동일시되는 존재인데 다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어를 등장시킴으로써 8개월 전에 발표한 「빛 속으로」의 남 선생 이미지는 처참히 무너진다. 「빛 속으로」는 일본어 글쓰기의 성공을 알리는 나팔이었지만, 「천마」는 평론가 이명식에게 “네 놈이야말로 조선 문화의 해로운 진드기”(16)라고 비난 당하는 현룡이 김사량과 동일시되는 장이다. 일본에 조선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김사량의 동기가 정당성 문제에 봉착하면서 「천마」와 같은 작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명식을 둘러싼 회합은 “현룡 일파의 언설에 대한 비판회”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룡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 예수와 동일시하는 장면

39)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2』, 역락, 2013, 19면.

도 등장한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모습에서 느닷없이 이렇다 할 연관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순교자적인 비통한 운명을 느끼려고 했다. (...) ‘혼돈했던 조선이 나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여 만들어 냈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역할이 끝나자 십자가를 매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자각에 다다르자 더욱더 슬픔이 북받쳐 올라와서 왈각 통곡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다.⁴⁰⁾

현룡이 예수서관 옆 캄캄한 골목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은화를 주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고, “복숭아 가지를 어깨에 올려놓은 채로 모두가 놀라워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중앙 정면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장면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간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현룡은 예수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시킬 뿐 예수가 십자가 희생이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는 다만 “자신이야말로 그 시골뜨기 마냥 구원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발버둥치고 있는 인간임에 틀림없다”(44)고 단언할 뿐이다. 결국 현룡은 조선과 일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뇌하며 방황하는 관념상의 이주민 형상을 띠고 있다.

현실의 무거운 괴로움에 짓눌려 너의 눈은 아직도 어두운 곳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명암 속을 헤엄쳐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면서 항상 어렴풋한 빛을 찾으려고 안달하고 있다. 빛속으로 나아가고 싶다. ...^(약)... 그러나 빛을 받들기 위해 나는 아직도 몸을 어둠속에 움츠리고 눈을 빛내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

40) 앞의 책, 39면.

다.⁴¹⁾

「빛 속으로」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적인 내선일체 관념을 보편적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전유하며 빛으로 나아가려 했던 김사량의 고뇌는 이러한 것이었다. 하지만 8개월 뒤의 「천마」의 주인공 현룡을 통해서도 그 어떤 빛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면서 항상 어렴풋한 빛을 찾으려고 안달하”는 김사량을 볼 때 「빛 속으로」는 긍정으로, 「천마」는 부정으로 읽힌다. 긍정과 부정 사이라는 애매한 인식의 위치는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과 관련된다. 안우식은 김사량의 형 “김시명이 총독부의 고급 관료가 되었다는 것은 설사 그들의 사상적 경향이 민족주의적이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유력자로서 통치 권력과의 사이에 어떤 종류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⁴²⁾고 언급하며 평양의 유력자로서의 “김사량의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⁴³⁾를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김사량은 「천마」의 오무라가 현룡에게 “아마토다마시 세레”(52)를 중용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김사량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이 김사량의 문학적 행보 주변 도처에 깔려 있었다거나 본인의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토다마시 세레’는 일본적 사상으로 완전히 거둡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뒤에 ‘조선 민족의 구원’(55)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일본제국주의와 기독교가 결합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와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홍이표의 언급을 참조할 만하다.

41) 김사량, 『빛 속으로』 후기. 안우식, 『아리랑의 비가 - 민족주의 작가 김사량의 비극적인 생애』, 열음사, 1987, 13면 재인용.

42) 안우식, 『아리랑의 비가 - 민족주의 작가 김사량의 비극적인 생애』, 열음사, 1987, 32면.

43) 앞의 책, 32면.

이시바의 외증조부 가나모리 쓰린이 속해 있던 일본의 초기 기독교 그룹인 ‘구마모토 밴드’는 ‘봉교취의서’를 통해 격변하는 근대 세계 속에 제국 일본을 위해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이었다. 1945년 종결된 제국 일본의 침략사 속에서 이들보다 식민지 경영과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가나모리 쓰린의 동료이자 구마모토 밴드의 대표자로서 앞서 소개한 에비나 단조는,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이른바 ‘조선전도론(朝鮮伝道論)’을 통해 일본의 황국적(皇國的) 기독교를 이식하려 노력한 목사, 신학자였다. 또한 신도와 기독교를 결합하여 아마토 민족에게 신이 부여한 선민 의식을 강조하며 일본제국의 팽창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⁴⁴⁾

오무라가 언급한 ‘아마토다마시 세레’는 제국 일본에 충성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독교와 맞닿아 있다. “한 몸이 됨으로 비로소 조선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격한 나머지 조선인에게 오해마저 받았던 것입니다”라는 현룡의 고백은 「빛 속으로」의 남 선생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이상향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연구자들이 「빛 속으로」와 「천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정체성 분열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안우식은 김사량과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해 김달수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가) 그의 집은 그리스도 교도로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신은 신자가 아니었던 모양으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도 없거니와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다.⁴⁵⁾

(나)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

44) 홍이표, 「일본 근대 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동아시아 근대와 기독교』, 세창출판사, 2022, 180면.

45) 안우식, 앞의 책, 28면.

배자였던 일본제국주의에게는 기피의 대상으로서 그 세력은 평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도 그 그리스도교를 시인은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⁴⁶⁾

(가)에서 김사랑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김달수의 언급만을 근거로 김사랑과 기독교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당시 기독교가 조선의 독립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선의 중학 시절부터 배속장교 배척 시위 주모자로 퇴학처분을 받을 정도로 민족주의적 면모를 지닌 김사랑이 충분히 시인할 만한 종교로 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안우식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이 그리스도교 신자였음을 예로 들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신이 부여한 사명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기독교는 김사랑에게 민족적 저항 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⁴⁷⁾다.

이에 반해 일본의 기독교는 ‘근대 세계 속에 제국 일본을 위해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고 이것이 「천마」에서 아마토다마시 세레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김사랑은 성장과정에서 평양이라는 조선 신앙 부흥 운동 중심지의 분위기를 체험하였고, 더욱이 가장 가까이에서 독립운동 대신 기독교 문화운동으로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었던 어머니를 보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빛 속으로」를 통해 소외받는 조선 민족을 끌어안았지만, 그의 기독교 관련 의식은 제국주의가 보여주는 아마토다마시 세레라는 타협의 길과 크게 상충되면서 「빛 속으로

46) 앞의 책, 29면.

47) 1940년대는 민족주의 기독교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무너졌던 시기다. 수세에 몰린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내선일체 관념을 내재화하며 신사참배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신앙을 동시에 상실하고 오히려 동족의 쫓겨간 의지를 꺾었다는 점에서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언급한 ‘금욕사제(contemptible priest, 식민 지배를 받으며 서구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동족을 억압하는 흑인)’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김사랑이 그의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선일체의 방향성은 일제 통치 권력에 대한 내면화보다는 권력 대항성을 보여준다.

」에서의 보편적 사랑 실천에 기초한 기독교적 내선일체를 포기하고픈 유혹이 생겨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 방향성 고민에 대한 혼돈의 정서가 「천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마」 주인공의 분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주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인이 되고자 열망한 현룡이 결코 일본인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식민주의 담론의 양가성과 그 틈새에서 분열하는 피식민지인의 초상을 발견”⁴⁸⁾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이 때 분열하는 피식민지인의 모델은 김문집⁴⁹⁾으로 알려져 있다. 박미라는 “김문집이 아니었다면 현룡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고 「천마」라는 작품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천마」를 특정 인물에 대한 모델 소설로 규정하였을 때,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기독교 관련 수사는 해석할 길이 묘연하다. 김사량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관점에서 당시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조선의 한 지식인의 분열을 묘사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사량이 과연 「천마」에서 제3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김사량이 특정 인물 때문에 「천마」를 썼는지의 문제이다. 광형덕은 “「천마」의 모델을 단일하게 한정하기보단 복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⁵⁰⁾고 언급하였고, 천정환은 “일제말기의 작가의식은 한 마디로, 총체적으로 흔들리며 재편되고 있었”⁵¹⁾기에 「천마」는 특정

48) 박미라, 「친일을 거부당한 친일문사 현룡과 김사량의 삼파(三巴)의 격투: 전쟁·규율화 체제를 통해 본 김사량의 「천마」」, 『구보학보』 38, 구보학회, 2024, 209면.

49) 「천마」에 등장하는 현룡의 이름이 류노스케인 것은 김문집의 일본어 이름이 류노스케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김사량이 「천마」를 쓴 것은 「빛 속으로」를 통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뒤의 일인데, 「천마」의 류노스케라는 이름은 아쿠타가와상이 기념하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이름을 상기시킨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기독교 관련성과 김사량의 기독교 관련성 간 영향 관계는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50) 광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203면.

51)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2면.

인물이 아니라 문단 전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또한 광형덕과 천정환이 김문집 만이 현룡의 모델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⁵²⁾하기는 하지만, 현룡의 야만적 신체성과 관련하여 김문집이 「천마」의 유력한 모델임을 주장한다.

「천마」의 현룡이 김문집이 아닌 복수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면, 김사량의 제3자적 작가의식에 대해서도 다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오태영은 “이 소설의 서사를 일본어 전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일본문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조선인 문학자의 욕망에 대한 부인으로 읽을 수 있다.”⁵³⁾고 언급하면서 이명식을 “김사량의 페로소녀”로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천마」는 일차적으로 김사량의 김문집 비판 의식을 소설화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천마」의 갈등과 분열을 기독교 수사와 연관시켜 보면 김문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김사량의 심층적 작가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즉, 현룡은 김사량 자신을 제외한 제3자로서 바라보는 조선 문단의 풍경이 아니라 김문집을 통로로 하여 내면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김사량은 「조선문화통신」에서 아래와 같이 「천마」의 주인공 현룡을 증오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하고 있다. 그러한 증오가 자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내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보면, 졸작 「천마(天馬)」 가운데 내가 부정적인 면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경향이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잘도 증오해야 할 주인공을 횡행하게 놔두는 사회를 저주하고, 더욱이 그러한 인물을 보고 조선인 전반(全般)에 대해 이러쿵

52) 박미라, 앞의 글, 212면.

53) 오태영, 「식민지 말 이중 언어 상황과 주체의 분열 - 김사량의 「천마」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389면.

저러쿡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인데, 도리어 사실상 역효과를 불러온 것인지, 내지인 친구 한돌과 비평가에게서 지나치게 자학적이라는 말을 들었다.⁵⁴⁾

그러나 안우식은 자학이야말로 추악한 주인공을 낳는 통치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추악한 주인공으로 떨어진 조선 지식인과 공통의 약점을 가진 자신에 대한 경계”⁵⁵⁾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굳이 안우식의 언급을 들지 않더라도 김사량이 식민지 지식인에 대해 자학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채로 제3자적인 관찰자의 시선만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신에 대한 경계는 김사량이 일본어 소설 창작이라는 좁은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천마」는 표면적으로 현룡처럼 보이는 자신의 진의가, 현룡과는 다르다는 것을 부단히 증명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천마」의 현룡은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자네와 같은 인간의 혼까지 구제해서 정화해 내지인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란 말일세”라는 오무라의 지적에 대해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의 열정으로 그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⁵⁶⁾라고 동의한다. 조선인의 상황을 일본에도 알려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김사량에게,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거둔 ‘아쿠타가와상 후보’라는 성과가 조선인 작가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천마」가 내지인임을 주장하는 현룡에 대한 자조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과 기독교적 요소를 자주 희화화하는 것, 과도할 정도로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모두가 「빛 속으로」의 평가에 대한 극단적 방어기제로 읽

54) 김재용·곽형덕 편역, 「조선문화통신」, 『김사량, 작품과 연구2』, 역락, 2013, 331면.

55) 안우식, 앞의 책, 64면.

56)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2』, 역락, 2013, 55면.

한다. 안우식에 의하면 김사량은 「천마」의 현룡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일본인 친구나 비평가들로부터 너무나 자학이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⁵⁷⁾고 밝혔는데, “거들먹거리게 하는 통치권력에 대한 혼신의 힘을 다한 비판이며 항의”⁵⁸⁾라고 본 안우식의 견해도 일리가 있으나 「빛 속으로」에서와는 사뭇 다른 방향성 때문에 일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정체성 갈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빛 속으로」와 「천마」 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 분열로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의 의미가 제한되는 듯하다. 그러나 「천마」 발표 8개월 후 김사량은 「광명」을 통해 「빛 속으로」에서 시도했던 ‘내선일체 전유’를 진일보시킨다. 「광명」이 「빛 속으로」에서 시작된 기독교적 내선일체 관념의 출발점으로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빛 속으로」에서는 내선일체의 기독교적 재해석을 통한 조선인과 혼혈인의 결합 구도를, 「천마」에서는 내선일체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의 무의미함에 직면한 의식의 분열 구도를, 「광명」에서는 「천마」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합 구도를 읽을 수 있다. 조선인과 혼혈인의 결합 구도는 혼혈인 안에 조선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가능성이 조선인·일본인 결합 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혼혈인⁵⁹⁾ 자체가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이미 진정한 일체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묘사된 관계들을 살펴보면 김사량은 결합 구도의 속성을 달리 하면서 점진적으로 결합 구도의 심급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7) 안우식, 앞의 책, 64면.

58) 앞의 책, 64면.

59) 정백수는 “〈혼혈〉은 이질적, 차별적 존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가치 체계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2, 299쪽.)고 언급하며 하루오의 혼혈 부정이 순혈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한다. 김사량은 바로 이 이데올로기를 깨고 결합 구도 내에 기독교적 가치를 포진시킴으로써 내선일체 관념을 바꾼다.

한편, 「천마」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광명」은 빛과 어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이 중국에는 방화(防火) 훈련 장면 묘사를 통해 내선일체의 이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명’의 ‘광’(빛)은 제국주의의 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목에 ‘어둠’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⁶⁰⁾ 일체의 정치적 방향에 동조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면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점철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김사량은 제목에 보란 듯이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고 있다. 내용으로 보아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내선일체 노선에 반기를 들만한 주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광명」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는 내선일체의 현실적 민낯을 먼저 보여주고 그 해결을 후에 제시한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공종구는 「광명」이 “조선과 내지가 차별 없는 팔굉일우의 동등한 국민이라는 논리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내선일체의 본질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체제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이자 기만적인 논리임을 우회적으로 증언”⁶¹⁾하는 민족주의적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내선일체의 어두운 면은 내선일체라는 용어의 존재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 내선일체는 사실 일본인과 조선인이 일체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만 성취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 영원히 합치될 수 없는 관계의 특성을 말한다. 이는 대동아공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쓰이던 1940년대 문학이 제국주의에 경도된 일반 시민과 군인들을 등장시키는 레퍼토리와 사뭇 다른

60) 「광명」의 제목에 ‘밝을 명’자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욕일기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정치적 목적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사량은 의도적으로 ‘어둠 명’자를 사용하였다. 제목에 ‘어둠’이라는 뜻이 포함될 경우 내선일체의 형상화 과정이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존재라는 점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 있는 대비적인 삶의 위치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61) 공종구, 「김사량의 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지향 - 『광명』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2, 인문학연구소, 2018.8, 26면.

전개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면 민족주의적이다.

그러나 김사량은 내선일체의 빛과 어둠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선일체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억지 실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 그러나 김사량은 갈등을 대동아공영의 환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혀 제국주의적이지 않은 가치로 제국과 식민지 국민을 통합시킨다. 여기에는 사랑과 이해라는 기독교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광명」에서 기독교 관련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빛 속으로」의 남 선생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미지를 실현한 김사량은 「천마」, 「향수」 등에서도 기독교 관련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이라는 보편적 휴머니즘의 측면들을 기독교적 가치로 읽어내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

「광명」에 나타난 ‘어둠’은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성의 재혼 가정⁶²⁾에서 발견된다. 조선인 남성은 전처인 조선인 여성 사이에서 큰딸을 낳았고, 일본인 여성과 재혼하여 둘째 딸을 낳았다. 이들은 조선에 갔을 때 조선인 가정부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녀가 바로 토요이다. 그들은 좋은 목적으로 토요를 데려왔으나 결과적으로 그녀를 학대하고 ‘나’의 개입이 시작된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조선인, 일본인, 혼혈인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의 갈등 속으로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광명」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 즉 ‘혜’와 ‘사치코’, ‘노부코’에게 주인공 ‘나’는 ‘높이 높이 들어 올리기’를 해준다. 몸을 높이 올려주면 각각 “조선

62) “선생께서는 조선 출신으로 내지인 아내와 함께 고향에 돌아갔을 때, 저 처녀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 하고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만.”(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3』, 역락, 2013, 240면) 이 부분은 먼저 발표된 「빛 속으로」에서 혼혈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가족 내 융화를 나타낸 것과 달리, 조선인 남성과 ‘내지인’(일본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의 융화를 제시한다. 즉, 「빛 속으로」에서 「광명」으로 나아감은 내선일체 범위에 대한 확장을 의미한다. 이는 적대국 구성원들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내선일체 논리와 대척점에 놓인다.

이 보여요. 삼촌하고 숙모도 보여요”, “학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지나가 보여요. 삼촌하고 숙모도 보여요”⁶³⁾라고 소리친다. 헤는 ‘나’의 조카로 조선 사람이고, ‘사치코’는 신분을 감추고 시미즈라는 명패를 내 건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부부가 운영하는 간이식당 여섯 짝 딸이며, ‘노부코’는 지나요리점 주방장 왕(王) 씨와 일본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다.

이들이 모여서 높이 들어 올려진 상태로 바라보는 지평은 대단히 내셔널리즘적이다. 조선이 보이고 삼촌과 숙모도 보인다는 것은 지나(支那)가 보이고 삼촌과 숙모도 보인다는 것과 동궤에 놓이며, 사치코가 조선이나 중국을 보지 않고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일본 땅의 학교와 교회가 보인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헤는 조선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조선을 먼저 보고, 사치코는 조선-일본 혼혈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일본의 문물만을 보며, 노부코는 중국-일본 혼혈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중국을 먼저 본다. 이는 김사량이 『광명』에서 ‘내선융화’라는 표현을 등장시키기 이전에, 일제강점기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적 상황을 조망하는 상징적 장치로 풀이된다.

김사량은 이러한 내셔널리즘적 상태를 ‘내선융화’ 전유를 통해 트랜스 내셔널리즘적인 것으로 바꾼다. 내선융화의 전유를 위한 서사적 장치는 ‘토요’에 대한 확대 사건을 통해 마련된다. “녹초가 될 때까지 매일 흑사만 당할 뿐으로, 사려가 깊지 않다던가, 내지어 숙달이 늦는다든가, 조선어로 투덜투덜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등 갖은 구실을 찾아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⁶⁴⁾ 토요에 대한 묘사는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발생하는 순수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미즈가 원래 조선인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토요를 잘 보살피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기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미즈의 내선융화에 대한 인식은 제

63)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3』, 역락, 2013, 217면.

64) 앞의 책, 219면.

국주의로부터 세뇌된 것으로서 ‘융화’라는 기의가 빠져 버린 내선융화의 빈껍데기를 의미한다. 일본인 여성을 부인으로 삼음으로써 내지와의 표면적 융화는 이루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조선인에게 차별의 당위성을 덧씌우며 증오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도쿄에 가면 야학에 보내준다, 바느질도 가르쳐 준다’라는 꼬임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침략 과정에서 기만적 불평등 조약들을 상기시킨다.

이웃에 사는 문(文) 군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토요를 피신시켰는데, 이 일이 ‘유괴 사주’ 문제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시미즈는 문 군에 대해 “저런 치들은 즉 내선융화(內鮮融和)를 함에도 증오해야 할 암적인 존재”⁶⁵⁾라 몰아붙이고 자신은 토요를 내지인 식모 이상으로 따듯하게 대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김사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의 중얼거림 또는 내적 독백을 통해 진정한 ‘내선융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환기시킨다.

“나는 다만 이러한 의미의 말을 하고 싶었다. 방금 당신은 내선융화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 문제를 몸으로 통절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यो. 그런데 선생은 맥의 식모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내선융화를 꾀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선융화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시미즈 집안의 아이들이 나타나자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흐르며 평정심을 되찾는다. 이는 내선융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내선융화를 비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진정한 내선융화적인 해결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내선융화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65) 앞의 책, 238면.

“제겐 댁의 집안일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댁에서 식모를 심하게 대했다는 것을 듣고는, 설령 그 처녀가 아무리 비난 받을 구석이 있다고 해도, 타인으로서도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게다가 웅변조가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다. “내선융화, 내선융화하고 다들 말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댁의 가정 내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⁶⁶⁾

‘나’의 이러한 태도 전환은 시미즈 가정에 대한 비난조를 단숨에 조선-일본 혼혈 가정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분위기로 바꾼다. 결정적인 것은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사이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제거하고, 남편의 본명을 공식 문패로 사용하라는 ‘나’의 제안이었다. 시미즈 부인은 이로 인해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된다. 조선인 남편이 도쿄로 이주해 와서 겪는 직장파와 집 문제, 아이들이 조선인의 피를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고 조선인을 미워하는 문제를 통해, 내선융화를 강조하는 제국 일본의 실체가 표면화 된다. 이는 제국 일본의 내선일체 관념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김사량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허울뿐인 내선일체가 제국주의의 정치적 환상일 뿐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실패를 선언한다.

하지만 일본의 제국주의로 발생한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김사량의 방식은 조선적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리즘이다. ‘나’의 감정선이 분노에서 연민으로 변화되는 구간은 곧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반대편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고 연대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시미즈 내외가 처음 가졌던 이상을 버리지 말 것과, 토요일을 훌륭하게 거두어들임으로써 스스로의 가정을 구원할 것을 요청하는 ‘나’는 조선인으로서 이미 일본인을 수용하고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비록

66) 앞의 책, 241-242면.

개인과 가정의 새로운 인식 면에서 그 해결 방안이 제한되지만, 혼혈들의 연대 상황을 통해 제국주의가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융화적 트랜스내셔널 세계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빛 속으로」에서는 가정 밖의 조선인 남 선생이 혼혈 가정 내에 있는 혼혈인 하루오에게 영향을 주며 내선융화를 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광명」에서는 조선인의 남편이 되는 일본인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내선융화를 강조하고 있다. 내선일체의 주체가 조선인임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정면으로 제국 일본의 실체를 꼬집어 드러낸다는 점은 일정 부분 민족주의적인 방향성을 띠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결말이 결국 내선일체 정책에 기여하는 것에 가깝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통상 소설에서 내선일체를 다룬 것만으로 조선과 일본의 합일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내셔널이 아닌 트랜스내셔널의 관점이 필요하다. 트랜스내셔널의 관점은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는 내선일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제국의 움직임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과제를 부여한 뒤에 전혀 다른 층위의 사상으로 내선일체를 포함한 세계인의 결합을 성취할 가능성을 마련한다. 이는 제국의 침략과 식민지인의 고통이라는 분명한 지배-피지배 경계를 허물고 현재 상태에서 국경 없는 모든 인격들이 합치되는 데 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국의 이상향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취하게 된다.

4. 마무리

김사량은 「빛 속으로」 발문에서 “내 마음은 언제나 명암(明暗) 속을 유영하며, 긍정과 부정 사이를 누비면서, 언제나 어슴푸레한 빛을 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⁶⁷⁾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항일 투사의 필사적 희망과

는 어딘지 다른 구석이 있다. 그것은 “빛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나는 어찌면 여전히 어둠 속에 웅크린 채 눈동자만을 빛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⁶⁸⁾라는 그의 말에서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서만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식의 편린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김사량이 사용하고 있는 ‘빛’의 상징이 일본 제국주의 욕일기와 표면적으로는 동조 관계를, 이면적으로는 대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김사량이 「빛 속으로」 이후에도 기독교적 요소를 작품 속에 연속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내선일체 대항 구도는 점차 벌어지고 새로운 관념이 실체를 드러낸다. 그는 끊임없이 내선일체 관념을 상기시키면서도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수직적 내선일체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독교적 관념을 사용한다. 특히 「빛 속으로」, 「광명」에서 욕일기의 ‘빛’에 대한 대항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일제가 강조하는 내선일체 관념의 안쪽에서 발생하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빛 속으로」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를 품는 사랑이, 「광명」에서는 내선 가정 및 일본인 여성 자체를 품는 사랑이 각각 강조되는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정치적 목적의 내선일체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시국협력 작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사량의 위치를 볼 때, 「빛 속으로」, 「천마」, 「광명」은 기독교가 지닌 빛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욕일기의 빛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김사량은 일본어 글쓰기를 앞세운 친일과 친일 너머에 있는 저항을 동시에 넘어서는 기독교적 ‘일체’의 사유를 실현하고 있다. 일체의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내선일체 관념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일체’의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67)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2』, 역락, 2013, 272면.

68) 앞의 책, 272면.

일본 제국주의가 추구했던 내선일체라는 통치 이념은 ‘일체’라는 말 속에는 응당 일체의 바탕이 되어야 할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김사랑은 일체의 정치적 목적을 띤 내선일체 관념의 틀 안에서 새로운 내선일체를 창조하였다. 그것은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필두로 하여 제국주의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심지어 원수를 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물론 「천마」에서는 정체성 분열을 겪고 ‘아마도다마시 세레’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 그것은 진일보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빛 속으로」에서 시도된 내선일체 관념 전유는 이후 「광명」에서 다시금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사랑의 행보는 단지 정체성 분열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고뇌라는 의미에서 더욱 확장된다. 식민지인의 분열 자체가 내포하는 양가성이 제국주의의 정형화 기획을 붕괴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왕의 연구 성과 위에서, 이 글은 식민지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와 분열 이후의 단계에 대한 김사랑의 이상향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천마」의 경우, 「빛 속으로」 이후 내선일체 관념을 더욱 새롭게 한 선행적 발전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중요성은 「빛 속으로」와 「광명」을 순전한 친일 텍스트의 차원에서 탈출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천마」의 정체성 분열 서사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 친일 코드와 기독교 코드의 합성을 거쳐 희화화되는 금욕사제적 인물 때문이다. 「천마」가 제국의 내선일체 관념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까닭에, 「빛 속으로」와 「광명」은 기독교적 관념을 내재화하며 내선일체 관념의 상대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수까지 품는 기독교의 보편적 융화 정신, 평등성을 전제로 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 등은 「빛 속으로」, 「광명」에 반복해서 나타나며 수평적 내선일체 관념을 제시한다. 이는 천황 중심으로 제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직적 내선일체 관념을 완전히 전복시킨다. 수평적 내선일체 관념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교리였고, 「빛 속으로」에서 시작

된 사랑은 「친마」에 등장하는 아마토다마시 세례의 유혹을 지나 원수인 일본인을 품는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김사량의 작품들은 이로써 내셔널의 차원을 넘고 ‘일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친일문학 텍스트’ 또는 ‘정체성 분열 서사를 통해 제국주의적 욕망을 제한한 저항 텍스트’라는 이분법적 평가에서 벗어나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2』, 역락, 2013.
 _____, 『김사랑, 작품과 연구3』, 역락, 2013.

2. 단행본

곽형덕, 『김사랑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김삼웅 편저,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1997.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재일조선인 - 역사, 그 너머의 역사』, 한승동 옮김, 삼천리, 2016.
 안우식, 『김사랑 평전』, 심원섭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0.
 _____, 『아리랑의 비가 - 민족주의 작가 金史良의 비극적인 생애』, 최하림 옮김, 열음사, 1987.
 옥성득·김건우·오동일·홍이표, 『동아시아 근대와 기독교』, 세창출판사, 2022.
 임종국 저·이건재 교수,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2.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옮김, 문학동네, 2014.

3. 국내논문

곽형덕, 「김사랑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213~248면.
 강희진, 「호주한인 시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8,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5~33면.
 공종구, 「김사랑의 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지향 - 『광명』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2, 인문학연구소, 2018, 23~46면.
 광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2012, 205~225면.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 김사랑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19~36면.
 김주영, 「김사랑의 「빛 속으로」를 통해 본 균열의 제국」, 『세계문학비교연구』 37, 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33~55면.
 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종/혼혈과 분열증 : - 장혁주 「우수인생」, 김

- 사랑 「빛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309~342면.
- 김학동, 「친일문학과 민족문학의 전개양상 및 사상적 배경-재일작가 장혁주, 김달수·김석범의 저작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20, 한국일본학회, 2019, 97~120면.
- 김혜연, 「김사량의 「빛 속에」의 근대성 연구」, 『배달말』 46, 배달말학회, 2010, 193~217면.
-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 231~255면.
- 박미라, 「친일을 거부당한 친일문사 현룡과 김사량의 삼파(三巴)의 격투 전쟁-규율화 체제를 통해 본 김사량의 「천마」」, 『구보학보』 38, 구보학회, 2024, 201~245면.
- 신현승, 「동아시아 근대사상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 -한중일 근대사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0, 한국일본사상학회, 2011, 155~177면.
- 오테영, 「식민지 말 이중 언어 상황과 주체의 분열 - 김사량의 「천마」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5,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371~404면.
- 이주미, 「김사량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양상」,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25~240면.
- 이헬렌,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경계에서 -김사량의 「빛 속으로」에서 주인공 미나미의 관계맺기와 자기 구현」, 『일본학』 61, 일본학연구소, 2023, 227~245면.
-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35~78면.
- 최정아, 「일본근대문학에서의 기독교의 수용과 변용-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크리스찬物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8, 한국일본어문학회, 2003, 345~378면.
- 홍이표, 「한일 기독교 지식인의 간토대지진 인식과 대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6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24, 45~81면.
- 황봉모, 「김사량(金史良)의 〈빛속으로(光の中に)〉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의 '정체성' 찾기-」, 『외국문학연구』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287~306면.

4.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levelId=hm_125_0050)

<Abstract>

Christian Transnationalism in Kim Sa-ryang's Novels

—Focusing on “Into the Light”, “Cheonma”,
and “Gwangmyeong”

Jeon, Gye-seong

This article discusses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concept of unity between Japan and Korea as the empire's camouflage logic, and identifies the nature of transnationalism that Kim Sa-ryang seeks to pursue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the idea of unity between Japan and Korea promoted by Japanese imperialism in “Into the Light”, “Cheonma”, and “Gwangmyeong”. This is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a new interpretation of Kim Sa-ryang's works beyond the dichotomous national perspective of ‘pro-Japanese/resistance’.

Kim Sa-ryang's intention to unite Korea and Japan is not a political cooperation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but a literary practice to restore the essential value of love. First, Sa-Ryang Kim attempted reconciliation between Koreans and people of mixed race through “Into the Light,” thereby breaking the discriminatory concept of unity between Korea and Korea and presenting an image of unity between Korea and Korea in the sense of a world community. The reconciliation between Koreans and people of mixed race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eacher Minami changes into a male teacher and embraces Haruo, the son of a person of mixed race and Korean, with love.

However, in “Cheonma”, along with the self-deprecation of

Hyeon-ryong, who claims to be an indigenous person(Japanese), the frequent caricature of Christianity, and excessive identification with Jesus, the image of a colonial citizen suffering before the path to compromise called ‘Yamatodamashi baptism’ is presented. This can be read as an extreme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negative evaluation of “Into the Light”. Nevertheless, in “Gwangmyeong”, Kim Sa-ryang once again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unit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ppropriates the direction of political harmony between Japan and Japan as a core Christian doctrine of ‘love for one’s enemies’ through the process of harmon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In other words, through “Into the Light”, “Cheonma”, and “Gwangmyeong”, Kim Sa-ryang not only completely overthrew the concept of vertical unity between Japan and Korea, which sought to establish an empire centered on the emperor, but also proposed a new transnationalism of Joseon people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using Christian doctrine as a methodology.

Key words: Kim Sa-ryang, pro-Japanese literature, resistant literature,
Consciousness of oneness between Joseon and Japan,
Christianity, transnationalism

투 고 일: 2025년 2월 7일

심 사 일: 2025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16일

수정마감일: 2025년 3월 28일